

은행 담보대출 금리 상승세 여전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5%대까지 올라... 가계 이자부담 '눈덩이'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5%까지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 불확실성까지 증대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하 KB)은 15일 기준 연 3.43~5.13%로 지난달 말보다 0.36%포인트 오르며 최고금리가 연 5%대를 돌파했다.

KB국민은행은 연 3.18~4.48%로 전월말 대비 0.24%포인트 올랐다. 또 신한은행은 연 3.35~4.65%로 0.31%포인트, 우리은행은 연 3.15~4.45%로 0.1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월(5.001%) 이후 처음

이다.

고정금리 뿐 아니라 변동금리도 쑥 뜰거리고 있다.

시장금리의 변화를 반영하는 코픽스(COP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9월부터 상승세였기 때문이다. 코픽스 금리는 10월에도 올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대출액 기준 코픽스는 1.41%로 0.06%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상승세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10~4.40%로 0.20%포인트 상승했고 우리은행도 연 3.03~4.33%로 0.18%포인트, 국민은행은 연 2.80~4.11%로 0.10%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시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증가 속도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또 은행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입장에서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점도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다.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까닭은 차기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보호무역주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해 차후 '트럼프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채(AAA, 1년 만기)의 월별 단순평균 금리는 10월 1.48%로 9월(1.39%)보다 0.09% 올랐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적탑승객 2000만명



이스타항공 누적탑승객 2000만명 돌파

대표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15일 심양~청주 노선 ZB802편에서 누적탑승객 2,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항공사로 발돋움했다.

지난 2009년 1월 김포-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 이후 7년 10개월 만이다.

취항 1년 만인 2010년에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한 이스타항공은 이후 2012년 3월 누적탑승객 500만명, 2014년 2월 1,000만명, 2015년 11월 1,500만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만명을 달성해 연간 수송인원이 50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후 탑승객 2,000만명을 달성한 이스타항공은 청주 국제공항에서 이스타항공 이사회 회장, 충북도지사, 청주부시장 및 임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천만 번째 탑승객을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날 2000만번째 고객으로 선정된 박경환(남/38세)씨는 심양타오셴국제공항에서 청주로 오는 이스타항공 ZB802편에 탑승해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중국노선 국제선 무료 왕복항공권과 기념품 및 꽃다발을 받는 행운을 안았다.

박씨는 "이스타항공이 다양한 중국 노선을 취항하면서 비즈니스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사업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행운의 주인공이 돼 더 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누적탑승객 2,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20일까지 탑승기간 12월 항공권을 편도총액 운임기준 김포-청주-제주 1만4,500원~ , 군산-제주 1만7,500원~ , 부산-제주 1만8,500원~부터 제공하며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한 기프티콘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인재용 기자

“대중국 쌀 수출준비 이렇게 하세요”

농진청, 생산·포장·마케팅·검역까지 쌀 수출 길잡이 발간

농촌진흥청은 대중국 쌀 수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용 쌀 생산부터 중국시장 내 쌀 유통망까지 쌀 수출을 위한 정보를 소개한 '대중국 쌀 수출 길잡이'를 발간했다.

우리 쌀 수출은 2007년 18개국 566톤을 시작으로 2009년 37개국 4,495톤을 수출한 바 있다.

중국과는 6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1월 처음으로 쌀 수출을 시작해 상해, 북경, 심천, 광저우 등으로 330톤을 수출했다. 올해 안에 500톤 이상의 추가 수출계약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최대 쌀 수입국으로 2014년 256만 톤의 쌀을 수입했다. 중국의 계속적인 경제 성장은 쌀 수요 증가로 이어져 앞으로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통관준비, 수입신고, 통관검역, 관세납부, 통관완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출부터 포장 납품에 이르기까지 통상 40일~60일 가량 소요되고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의 빠른 검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각 항마다 요구되는 서류, 통관 소요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가정용은 1kg, 2kg, 2.5kg, 3kg, 5kg, 10kg 단위로 포장에 판매하며, 5kg 이상은 포장재에 손잡이를 갖추면 좋다.

외식업체, 기업식당 등 대량 소비자에서는 2kg, 25kg 단위로 유통하며 근거리 판매점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2kg, 5kg, 10kg

단위로 판매되며 포장에 대해 소비자들 반응이 민감하다.

수확 후 관리로 검역병해충인 곡식수시랑이 등과 같은 해충 방제를 위해 훈증소독이 필수이며, 중국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따라 농약사용시기 및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농진청농정 소속 국립식량과학원 위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한 '대중국 쌀 수출 길잡이'를 중국으로 쌀을 수출하고 있는 RPC(미국중합처리장)와 앞으로 수출 계획이 있는 수출 쌀 생산단지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농진청농정 작물육종과 김보경 과장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쌀의 활로개척을 위해 수출 쌀 생산단지, 수출 미국중합처리장과 관계자들은 수출 시에 필요한 통관 및 관련 절차 등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CJ오쇼핑, 수험생 할인이벤트

CJ오쇼핑이 수험생리사업을 끝낸 수험생들을 위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인기 패션, 뷰티 상

품은 물론 여행 상품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된다. CI몰에서 열리는 '수능 후 나를 위한 선물' 기획전에서는 패션 잡화가 대거 할인 판매된다. 프리미엄 소가죽 테오엔 에이치 백(80% 할인), 성숙미를 한 층 높여줄

'아가타 코코로즈 목걸이'(21% 할인), 다니엘 웰링턴 시계(30% 할인) 등이 판매된다.

20대가 선호하는 뷰티 브랜드 아이템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뉴스

전북우정청, 봉수대 찾아 정비활동

전북우정청은 16일 고창군 소재 고리포와 소음포 봉수대를 찾아 탐방로 개척, 포지판 설치 등 봉수대 정비활동을 펼쳤다.

전북에는 연변봉수로와 내지봉수로 등 25개의 봉수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동안 방치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북우정청은 앞으로 전북에 설치된 25개의 봉수대를 12월까지 현장 답사하고 정비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북우정청 김병수 청장은 "통신원조인 봉수대의 가치를 재조명하



전북우정청의 봉수대 방문 사진

고 통신,문화적인 가치 발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듣는 '기업속으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익산국토청, '전북 9필지·전남 16필지' 공개경쟁입찰

익산국토관리청은 국가 소유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25필지 토지(9,004㎡, 예정가격 1억9,800만원)를 공개 매각한다.

이는 익산국토청이 도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들여 관리했으나, 앞으로 국가적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토지들을 선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온비드시스템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매각 예정가격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의 자동결정 방식으로 결정된다.

1차 입찰기간은 2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지며, 유찰될 경우 3차 입찰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 및 입찰 유의사항은 온비드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국유지 공개매각은 국가는 필요 없는 땅을 팔고, 국민은 필요한 땅을 살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토지가 또 발생할 경우, 필요시마다 추가로 공개매각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도내 수출 확대 방안모색

전북경제진흥원(경진원)은 16일 도내 기업들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 희망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경기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돼 적극적인 수출지원이 필요한 기업대표 30여명이 참석해 수출지원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토의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진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 수출기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의 일환으로 수출주력기업 육성 및 해외비이어나 만남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진원 담당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도내기업의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기업들의 수출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진원은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 직접 찾아가 듣는 '기업속으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